

# 평화·인권 시인 김종삼 삶 음악으로 풀어낸다

### 16일 김넷과서 '중삼음악회 광주캠프' 광주 금남로라는 공간성 작품과 연계 말려 부활 등 감상·시인 토크콘서트도



故 김종삼 시인



중삼포럼이 주최하는 '중삼음악회'는 시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중삼포럼 제공>

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 '금남로'라는 공간성을 김종삼의 시와 연계해 풀어낸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광주에서는 처음 열린다는 의미 외에도 김종삼 시인의 평화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금남로의 상징성과 맞물려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시와 음악이 함께 하는 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두 2부로 구성된 축제는 제1부 '어머니의 눈물가에 놓이네', 제2부 '금남로의 시인들'로 꾸며진다.

1부에서는 먼저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공연 다큐 영상'이 상영된다. 이어 '용당포, 아우슈비치, 금남로'에서 자행됐던 역사의 악몽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시와 음악 감상이 있다. 김종삼의 시 '민간인', '아우슈비츠 라게르', '오동나무가 많은 부락입니다'와 더불어 헨릭 고레츠키의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 슈베르트의 '죽음곡 작품번호 142', 말리의 교향곡 2번 '부활' 등을 만난다.

시 해설은 이민호 시인, 음악 해설은 박시우 시인이 맡았다. 이어 김경애, 김백형, 권현형 시인에 관한 시를 낭송한다.

2부 시인들과의 토크에는 김준태, 김완, 이재연, 고영서, 노혜경, 임동환 시인이 참여한다. 시인들은 '시인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시를 쓰는 이유, 시에 대한 평소의 생각 등을 다채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문의 010-6295-806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47년 봄  
심야(深夜)  
황해도 해주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스무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水深)을 모른다.  
(김종삼의 '민간인')

시집 '복치는 소년'으로 유명한 김종삼(1921~1984) 시인은 순수시의 지평을 넓힌 대표적 문인이다. 위의 시 '민간인'은 김종삼 시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1947년 황해도 해주의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에서 벌어진 일을 형상화한 시다. 작품에는 시인 특유의 여백의 미와 상징이 투영돼 있다.

당시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를 하고,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된다. 북한을 탈출한 캄캄한 밤에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바다는 영아를 삼킨다. 영아를 바다에 던진 어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시 '민간인'에는 당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혹한 죽음과 억압을 당해야 했던 수많은 장삼이사들의 아픔이 녹아 있다.

김종삼 시인의 삶과 시를 음악과 토크로 풀어내는 축제가 광주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16일 오후 3시 복합문화공간 김넷과(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열리는 '제11회 중삼음악회 광주캠프' 주제는 '용당포·아우슈비치·금남로 그리고 평화'. 이번

행사는 중삼포럼(대표 이민호)이 주최하고 광주시 동구청, 광주전남작가회의, 계간문화재단, 김수영연구회, 도서출판 복치는 소년 등이 후원한다. 중삼포럼은 김종삼 시인의 작품과 생애를 연구하고 추모하는 단체로, 경기도 일산에 법인이 있으며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 조영관 문학창작기금 제9회 수혜자 박은영 시인

### '보수동 골목'의 9편 "상처입고 쓰러진 자의 그림자"



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믿음 안고 박은영 시인의 고투 어린 시 작업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했다.

한편 이 창작기금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2007년 세상을 떠난 시인 조영관의 뜻과 삶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수여식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2가 문화공간 '온'(YMCA회관 옆골목)에서 열린다. 문의 010-8206-24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



국악교실 민요반 강좌 진행 모습.

##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 18일부터 모집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을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연말까지 주최하는 국악교실은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 판소리시민 체험장에서 진행한다.

판소리, 고법, 민요, 한국무용, 장고, 가야금병창 등 총 6개 과목의 국악교실은 주 1회 2시간씩 운영된다. 한 강좌당 수강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김찬미(판소리·월요일 오후 4시), 한정민(장고·월요일 오후 1시 30분), 노혜현(민요·화요일 오후 3시), 황소희(한국무용·수요일 오후 4시), 김준영(고법·목요일 오후 4시), 이정아(가야금·금요일 오후 2시) 등 역대 임방울국악예수자들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 월 1만원. 문의 062-521-0731-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27년간 지나온 삶 서정적 언어로 노래

### 채광석 시인 '꽃도...' 펴내

채광석 시인이 27년 만에 두 번째 시집 '꽃도 사람처럼 선 채로 살아간다'를 펴냈다.

지난 1990년 '사상문예운동'으로 등단하기 전부터 벽보를 통해 또는 익명으로 시를 발표했던 문학청년은 1995년 민족문학작가회의 기관지 '내일을 여는 작가'에 13편의 시를 발표한 이후 절필을 한다.

이후 27년 만에 발간한 작품집에서 시인은 지나온 삶을 서정적인 언어로 노래한다. 오랜 세월의 편린이 녹아 있는 시들은 마치 누군가 일기장을 훑어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의 시 '1997 절필'에서 저간의 사정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젊은 날의 철학과 사상을 한 종이상자에 담아/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 부러버린 가담은/ 절망 속으로 들어간 절망이/ 끝내 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젊은 날 시인이 처했던 상황은 이상을 포기하고 부양과 생계에 발이 묶였음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았던 기간 만큼이나 시에는

30대와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는 생의 이력과 깊이가 담겨 있다.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38세대 문학인으로서의 특별한 경험을 특권화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되돌아보는 태도와 시각의 깊이, 넓이에 의해서 문학다운 가치를 부여 받게 된다"고 평한다.

한편 전북 순창 출신의 채 시인은 광주 인성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과에서 수학했다. '친구여 찬미 내리는 초겨울 새벽은 슬프다'를 펴냈으며 현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위기의 도시 야간경제로 풀어라"

### 정은주 박사 '야간경제...' 펴내

"세계적으로도 도시의 시간 확장을 통해 야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다. 야간경제를 긍정적으로 도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대열에 선 도시들로는 베를린, 시드니, 바르셀로나, 런던, 싱가포르 등이 있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도시는 대개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는 포용도시, 국제도시를 지향한다. 분명 야간경제 적용에도 명암이 존재하지만, 세계인을 유인하고 경제 활성화, 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도시들의 노력은 실험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도시는 저성장과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연 도시는 생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까.

도시의 잠재력을 일깨워 제도약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야간경제'를 화두로 제기한 연구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경제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은주 박사(지역발전전략연구원 대표이사)가 펴낸 '야간 경제, 도시의 밤을 깨우다'(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는 야간 경제를 도시에 접목시키는 방법과 가능성을 제안한다.

책은 기존의 사고, 가치관, 생각 등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의 개방성과 포용성



을 도시 생존과 발전의 근원이라 여기는 다수의 연구자,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은 인간, 도시, 기술, 혁신, 위기, 전환, 경제, 일자리, 소득 등 수많은 문제가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현재 도시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장이다. 2부는 새로운 도시의 움직임과 지향하는 도시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3부는 본격적으로 도시의 밤을 깨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정 박사는 야간경제 개념과 등장배경, 문화, 관광 등의 영역과 접목시켜 24시간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들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4부는 야간경제 적용을 위한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모델 등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세계도시들이 야간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길을 찾는 노력 또한 도시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노력"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조정하는지는 도시의 주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곡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녀 마사지 전문점 친철 신용 분위  
☎010-9277-2011, 010-4624-8457

###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 그 집 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